

A Study on Conflict-factors and Influence of the Bremen Controversy of 1905

Jeongdo A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Abstract

Purpose of the Study: This paper focuses on a significant historical event, namely the Bremen teachers' movement of 1905, which aimed to abolish religious classes in public schools. By examining an incident in the German history of religious education that remains unfamiliar to the Korean Christian Association, I aim to explore the interconnected diachronic and synchronic influences involved in this particular event. **Contents and Method:** The religious controversy sparked by the Bremen Teacher's movement of 1905 marked the first official call for reform towards neutral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s. Several factors contributed to this debate, including the rise of civil society in the 19th century, advancements in science and scholarship, the emergence of social democracy,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Lutheran and Reformed Churches. This paper delves into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controversy and analyzes its impact on the develop of religious education in Germany. As reflected in the Bremen Document, the official outcome of the Bremen Teacher's Movement, educators argued for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education, emphasizing that religion is a deeply personal matter. The document called for the adoption of value-neutral moral education in public schools, achieved through objective Bible-History classes. This paper explores the impact of the Bremen School Dispute of 1905 on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education in Germany. Specifically, the provisions of the Bremen State Constitution of 1948 and the German Basic Law of 1949 were influenced by the controversy, with Article 141 of the Basic Law - known as the 'Bremen Clause' - providing a legal basis for the exclusion of churches from religion-classes at Schools in Bremen. The Bible-History Classes advocated in the Bremen Documents served as the basis for the present-day Bremen religious education curriculum well known for neutral objective religion-classes. **Conclusion:** This study analyzes the background, content, and influence of the Bremen School Controversy, which remains relatively unknown in Korea.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ongoing discussion of Christian school education in Korea, with an emphasis on maintaining a Christian identity while promoting religious publicity in the classroom.

Key Words

Religious Controversy in Bremen, Objectivity of religious classes, Christian school education, German Basic Law, Bremen Clause.

‘브레멘 학교논쟁’(1905)의 기독교교육 갈등요인에 관한 영향사 연구*

안정도**
(장로회신학대학교)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1905년 브레멘에서 일어난 교사들의 학교에서의 종교수업 폐지 운동에 관한 역사적 사건 문헌 연구다. 한국 기독교학회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독일 종교교육사의 한 사건을 조망하면서, 이 사건 안에 얽혀있는 통시적·공시적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1905년 독일 브레멘을 중심으로 일어난 학교 종교수업에 대한 논쟁은 학교 종교교육 역사에서 중립적 종교수업으로의 개혁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최초의 사건이다. 그 배경에는 19세기 시민 사회의 성장, 과학과 학문의 발전, 사회민주주의 정치적 발달, 루터교회와 개혁신교회의 갈등과 같은 다양한 촉발 요인이 존재한다. 이 논쟁의 공식 결과물인 ‘브레멘 문서’에서 교사들은 종교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논리로 학교와 교회, 종교와 교육이 분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가치중립적인 도덕교육을 지향하며 객관적 ‘성서 역사 수업’을 제안한다. 1905년 브레멘 학교논쟁은 이후 1948년 브레멘 주 헌법, 1949년 독일 기본법의 종교교육 관련 법 조문에 영향을 미쳤다. 기본법 제 141조는 ‘브레멘 조항’이라고 불리며, 브레멘 종교수업에 교회가 관여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브레멘 문서’에서 요구된 성서 역사 수업은 오늘날 브레멘 종교교육 과정의 특징인 ‘성서역사수업’(BGU)의 모태가 된다.

결론 및 제언 : 1905년 브레멘 학교논쟁은 학교에서의 종교 중립적인 수업에 대한 최초 논의이다. ‘브레멘 학교 논쟁’의 배경, 내용, 영향을 살펴보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 학교교육의 논의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기독교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 주제어 〉

브레멘 학교논쟁, 종교수업, 중립적 종교교육, 헌법, 기독교학교

□ 2023년 6월 4일 접수, 2023년 6월 28일 심사완료, 2023년 6월 29일 게재확정

* 본 논문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2023년 4월 15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했음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객원교수, comemessiah@gmail.com

I. 들어가는 말

독일 정치 철학자 블로흐(E. Bloch)는 한 시대에 발생하는 갈등을 전(前)시대, 현(現)시대, 탈(脫)시대의 요소들이 동시적으로 부딪히는 충돌사건으로 이해하며, 이를 '비 동시성의 동시성(Gleichzeitigkeit der Ungleichen)'이란 개념으로 표현한다(Bloch, 1985; Schwartz, 2001). 이 말은 우리의 생활에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는 다층적인 시대의 이념과 사상이 응축되어 있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축적된 갈등의 표출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비 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 학교 종교교육 논의에도 의미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학교 종교수업 논의에서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전통의 보존 방식은 늘 이해 충돌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첨예한 갈등과 논쟁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과정뿐 아니라 설립, 운영, 학생 선발, 교사 임용 등과 관련된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에 관한 논의의 핵심에는 국가와 교회, 종교와 교육이라는 거대 담론이 미묘한 긴장의 관계로 얽혀있다(박상진, 2019). 본고는 이러한 학교 종교교육의 긴장 담론을 전통과 진보의 동시적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19세기 후반 독일 브레멘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충돌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브레멘 학교 논쟁과 그 후속 문서들은 학교 종교 수업의 논쟁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다. 학교 종교 수업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고 증폭되는 갈등의 요인들을 시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과 역사에서 축적된 갈등이 폭발적으로 공론화되는 일련의 촉발 사건들과 이와 관련된 논쟁 문서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종교와 교육의 분리 논쟁 역사 연구에서 초기 촉발사건으로는 일제 강점기 '개정사립학교규칙'을 둘러싼 기독교 학교의 투쟁을 들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문서는 일본 외사국장 고마츠와 미국 장로교 선교사 브라운이 서신으로 논쟁하는 '고마츠(小松緑)-브라운(A. J. Brown)의 종교교육 논쟁'(이성전, 1994; Brwon, 1915)을 눈여겨 볼만하다. 최근 들어서는 2004년 초반부터 시작된 '강의석 사건'과 대법원 판례는 이 분야에서 논쟁과 연구에 불을 지핀 촉발사건과 주요 문서라 할 수 있다(김유환, 2008; 박상진, 2013a).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1905년 '브레멘 학교 논쟁(Bremische Schulstreit)'은 한국의 논쟁들과 같은 맥락에서 학교와 종교의 긴장 관계를 대표하는 촉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 종교교육 논쟁,' '강의석 사건,' '브레멘 학교 논쟁'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 안에는 국가-교회-교육의 관계가 복잡 미묘하게 얽혀있고 각각의 사건과 논쟁들은 그 이후에도 학교 종교교육의 분야에서 통시적이며 동시에 공시적으로 파급 효과를 미치는 '영향사(Wirkungsgeschichte)'라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브레멘 학교 논쟁'은 190

5년 독일 브레멘 교사연맹이 학교 종교 수업의 폐지를 요구하며 『브레멘 문서』(Denkschrift)를 진정서 형식으로 교육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보수적인 독일 종교교육 지형에서 국공립학교 종교수업의 개혁을 공론장으로 끄집어낸 이 사건은 종교교육 역사에서 급진적이면서도 ‘혁명적인 사건’이라고까지 언급된다(Kliss, 2005, 254).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당시까지는 그저 수면 아래서 요동만 치던 진보적 종교교육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당당히 드러나게 되었고, 20세기 초 시작된 새로운 독일 종교교육의 논의에 한 공간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역사적 사건이 어느 분야에서 영향사 가치를 갖는 촉발사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발생한 그 시대의 영향력(공시적 관점)과 이후 시대의 연결적 영향력(통시적 관점)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단순히 한 분야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신학, 교육, 정치, 사회적 담론과도 연결되어 확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강력한 촉발 사건으로 지목할 수 있다. 이런 전제에서 이 글은 1905년 브레멘 학교 논쟁 사건을 적어도 네 가지 이유에서 영향사적 촉발사건으로 본다. 첫째, 브레멘 사건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대 전환기에 학교 종교 수업이란 주제로 소위 진보와 보수 사상들이 한데 얽혀 부딪히는 ‘비동시성의 동시적’ 사건이다. 둘째, 『브레멘 문서』는 이후 ‘츠비카우 테제’, ‘뒤셀도르프 테제’와 같은 다른 지역 후속 선언의 표본이 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Kliss, 2005, 257-261). 셋째, 브레멘 학교 논쟁은 정치 세력(사회민주당)과 결합하여 1947년 브레멘 주 헌법과 1949년 ‘브레멘 조항’이라 불리는 독일 기본법 제141조 조항 신설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브레멘에서 제안된 성서수업의 제안은 오늘날 가치중립적 도덕 교육으로서의 ‘성서 역사 수업(Biblische Geschichte Unterricht; BGU)’의 모형이 된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브레멘 사건은 영향사로서 촉발 사건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글의 일차적 목표는 아직 한국 기독교교육 연구 분야에서 비교 연구자료로서 소개되지 않은 이 사건의 개요를 분석적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이 사건 안에 내재한 갈등 요인과 사건 개요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종교 교육의 배경과 구조가 다른 한국과 독일의 학교 교육에서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갈등 요인과 주장들이 반복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고, 종교와 교육의 긴장에 대한 심층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의 II장에서는 먼저 브레멘 학교 논쟁의 시대적 배경과 갈등 요인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브레멘 논쟁을 직접적으로 촉발한 사건과 논쟁의 결과물로 제시된 『브레멘 회보』와 『브레멘 문서』를 개괄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브레멘 논쟁이 종교수업과 연관된 헌법 제정과 추후 종교 교육과정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V장에서는 이 사건이 한국 기독교교육과 연결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배경 이해: 갈등의 축적과 증폭

1905년 브레멘 학교 논쟁은 19세기 중반부터 축적된 갈등이 공식적으로 구체화한 사건이다. 그 배경에는 근대로 넘어가는 시대 전환기에 축적되고 증폭된 주요 갈등 요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크게 4가지 변화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정치적 변화 - 국공립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국가의 점진적 개입과 조율; 2) 종교사적 변화 - 종교에 대해 새로운 관점 형성; 3) 시민사회 변화 - 노동자로서 교사의 기본 권리에 대한 요구; 4) 학교 정체성과 교육과정 변화 - '교회학교'가 아닌 '시민학교'에서의 탈(脫)교리적 성서 역사 수업에 대한 요구.

1. 정치적 변화: 국가 주도의 교육 정치화

종교개혁 이후 18세기까지의 독일 학교의 정체성은 기독교와 분리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국가가 설립을 주도하는 공립학교의 필요성은 독일 종교개혁에서 주장되었던 루터(M. Luther)의 '두 왕국 사상'과 '만인 제사장설'과 같은 신학 입장에 기초하고 있으며, 교리문답 형태의 종교 수업, 목사의 학교 감독권, 학교의 설립과 운영 원칙들을 비추어 볼 때 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주도권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다(양금희, 2012; 정병훈·박승재, 1986). 하지만 사상적 격변기였던 19세기 후반부터 점진적으로 학교에 대한 전통적인 책임과 권한이 교회에서 국가로 점진적으로 이양되는 '국가에 의한 교육 정치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1794년도 프로이센 일반란트(주)법(ALR: Allgemeines Landrecht)은 학교를 "국가의 사업(Veranstaltung des Staates)"으로 규정하고 각 지역에 다양한 근대식 학교를 설립한다(Kuhlemann, 1992, 89).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개혁이 서서히 진행되었지만, 19세기 초반까지 프로이센의 국공립학교의 현실은 여전히 전통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교회의 영역에 남아 있었다.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부모는 자녀를 국가의 학교에 보내야 한다!"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Das Corpus Constitutionum Marchicarum, Teil I, Abt. I, Nr. XCVII, Sp. 527-529), 학생의 학교 출석률은 지극히 낮았고 학교는 대부분 개인 학비나 빈약한 교회 기금으로 유지되었기에 학교 재정은 열악하였다. 더군다나 교사를 양육하는 교육과정이 미비했기에 실질적인 학교 교육은 여전히 전통적인 관행을 따르는 실정이었다(Wittmütz, 1990).

하지만 1806년 신성로마제국 해체, 독일 서부의 프랑스 지배와 같은 군사·정치적 격변을 경험한 프로이센 정부는 학교 교육이 신민의 복종, 군사·경제적 정책 등과 같은 국가 운영의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학교에 대한 국가주의적 정비와 개혁에 관심을 두게 된다. 프랑스 혁명 이후 거세지는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갈등 속에서 학교를 통한 전체주의적

교육의 필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Wittmütz, 2007). 시대 전환기의 독일 학교 교육 정책의 변화는 위정자들의 종교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었다.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에 “종교를 국가관의 중심에 놓은 마지막 프로이센인”이자 “왕관을 쓴 아마추어 신학자”였던 빌헬름 4세(F. Wilhelm IV)는 비록 낭만주의 시대의 교육을 받았으며 동시에 전통적인 경건주의를 지향하는 “낭만적인 반계몽주의의 조합주의적 이념”-그의 애매모호한 혼합주의를 비판하는 역사학자의 표현-의 신봉자였다(Clark, 2020, 592-593). 이런 평가를 빚대어 볼 때, 빌헬름 4세는 국가의 권위를 위협하는 자유주의자들에 대항하여 국가의 지배력을 지키기 위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육정책에 관심을 두었다.

이런 배경에서 프로이센 국가와 학교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종교 교육 정책을 국가 교육정책의 도구로 삼았다. 예를 들어, 빌헬름 4세는 3월 혁명 다음 해인 1849년 2월, 추밀원(Geheimrat)의 교육 책임자였던 퍼디난드 스틸(F. Stiehl)은 프로이센 37개 지역의 교원 양육을 책임지는 교사 13명을 모아 3월 혁명의 책임을 “그릇된 교사, 그릇된 교육, 비종교적인 인간 지혜의 잘못”으로 돌리고, 국가가 더 강력하게 개입하는 교육법을 준비한다(Schepp, 1993, 167). 격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위정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종교교육 관련법은 바뀌기 시작했고, 종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율’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국가의 구체적인 개입과 조율은 1850년 1월 31일 발표된 학교의 종교 교육에 관한 『프로이센 헌법』(Verfassungs-Urkunde des preußischen Staates)에서 몇몇 조항은 ‘조율’의 성격으로 혁명적 계몽주의자들과 경건주의 교회의 입장을 중재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강력한 ‘개입’의 성격으로 혁명의 부리인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이 국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고자 기독교 전통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자 했다. 역사학자들에게 ‘낭만적 반계몽주의자’라고 평가받는 위정자 빌헬름 4세의 종교·정치적 성향은 1850년 프로이센 헌법에서 개입과 조율을 시도하는 교육조항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von Paderberg, 1850, 3-4, 조율과 개입의 분류는 필자).

〈표1〉 1850년 프로이센 헌법 종교 교육 조항

조항	내용	성격
제20조	학문과 교육에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조율
제21조	청소년 교육은 국공립학교를 통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부모 또는 대리인은 자녀가 학교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개입
제22조	도덕, 과학, 기술 자격이 국가 기관으로부터 입증된 자는 수업 진행, 교육기관 설립·지도의 자유권리가 있다.	개입·조율

조항	내용	성격
제23조	모든 교육기관(국공립 및 사립)은 국가로부터 임명된 담당자에게 감독 받는다. 학교의 교사는 국가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개입
제24조	공립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교단(교회)와의 관계를 최대한 고려한다. 학교에서의 종교 지도는 해당 종교기관에 일임한다.	조율
제25조	지역사회는 학교의 대외 업무를 관리한다. 공립 초등학교 교사는 지방 법원에 참정권을 지닌 이에 한해 임명된다.	조율

1871년 11월 통과된 ‘학교 감독법’(Schulaufsichtsgesetz)에 의해 그동안 학교에서 일 하던 성직자 대신 전임 학군 출신 감독관이 고용되기 시작한 것처럼, 모든 공립 및 사립 교육 기관의 감독과 감독관 임명 권한이 전적으로 국가로 이양되었다. 많은 학자는 이러한 학교에 대한 국가 행위를 교육이나 종교의 순수한 목적보다는 교육을 정치 수단으로 삼는 교육 신민화 혹은 교육 정치화 관점에서 해석한다(Jeismann, 1974, 172-174).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각 지역의 학교 교육 주도권에 대한 긴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브레멘의 경우, 1885년부터 ‘브레멘 시민’으로 구성된 상원 위원회가 학교 감독권과 교사 임명권을 갖게 되었고, 1889년에는 시민 상원 위원회가 지역의 학교를 관리한다는 법률이 규정되었다. 학교는 더 이상 교회의 영역이 아닌 것이 되었다. 브레멘 교육 위원회 안에는 세 가지 그룹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그룹은 학교의 정체성을 ‘근대 시민학교’로 규정하며 점차 교회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이 있었다. 두 번째 그룹으로는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며 정책 변화의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온건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으로는 학교 교육을 실천신학의 관점으로 이해하며 학교를 ‘세례 교육’을 위한 교회의 교육기관으로 보는 전통적 교회 지도자와 신학자들이 있었다. 계몽주의와 경건주의,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양산되는 다양한 시대정신들은 브레멘 학교 정책을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었다(Bloth, 1961, 26-27).

2. 종교사적 변화 - 종교에 대해 새로운 관점 형성

블로트(P.Bloth)는 그의 박사 논문에서 ‘브레멘 학교 논쟁’을 당시 헤르바르트주의 교육관, 일원주의(Monismus) 과학관, 사회민주주의(Sozialdemokratie) 정치관으로 대변되는 ‘진보(Fortschritt)’ 세력과 교회의 전통을 보존하는 세력이 충돌하는 긴장의 사건으로 분석한다(Bloth, 1961, 27-29). 진보적인 교육자들은 국공립학교에서의 종교 수업은 단순히 종파적 신앙의 전통을 전수하는 교리문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학문적 교육에 비추어 학생의 감정을 두드리며 도덕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윤리적 역사 수업’이 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들은 술라이어마허, 헤르바르트, 디스터벡의 종교·교육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후대 진보 교육가들에 의해 강하게 제기되었다.

술라이어마허의 관점에 따르면, 종교는 ‘절대적 의존의 감정’으로서 ‘직관(Anschauung)’과 ‘감정(Gefühl)’에 기초하기에 종교의 내용 그 자체는 ‘사고(Denken)’와 ‘행동(Tun)’을 지향하는 외부적인 개입 형태, 즉 학교 교육으로는 전수될 수 없다(Schleiermacher, 1799, 92-93). 이러한 계몽주의적 종교 이해는 교육 사상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헤르바르트(J. Herbart)는 “종교는 모든 인간의 의존 감정과 지고한 존재의 본성으로 발전”하는데, 교회에 의해 종교는 “자발적이지 않은 피상적인 신앙고백”의 형태로 가르쳐진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도덕만이 본래의 참된 신앙 항목으로서 수업되어야 하며 종교 수업은 ‘심성교육 (Gesinnungsunterricht)’을 지향하는 도덕 수업(Sittliche Unterricht)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윤응진, 1990, 240). 디스터벡(A. Diesterweg) 역시 진보 정신에 입각하여 “옛 학교는 교회 학교였지만 새로운 학교는 국가 학교”라고 주장하며 새 시대의 교육을 교회와 학교의 급진적인 대립 관계로 바라본다. 그러면서 디스터벡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신앙 고백적인 교리 수업은 학교가 추구해야 하는 순수 교육 이론에서 어긋난 것이며, 학교에서의 종교 수업은 인본주의적, 합리주의적, 계몽적, 반교조적, 반교회적 - 그러나 반종교적이지는 않은 - 인간 발전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강문규, 2009). 디스터벡은 총 10,000페이지가 넘고 약 20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의 문학 논평집을 발간하면서 새 시대의 교사, 문학자, 과학자들에게 진보 교육사상을 전수하였다. 게다가 프로이센 의회 의원이면서 교사 훈련 책임자로서 ‘독일 교사연맹’ 설립과 후원 역할을 했다(Günther, 1984). 브레멘의 교사들은 이러한 계몽주의 종교·교육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디스터벡의 교육사상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브레멘의 교사, 목사, 정치가들은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결집하게 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브레멘 교사들의 연합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Bloth, 1961, 57-61).

3. 교사들의 정치적 결집: 브레멘 교사연맹 (Bremeischen Lehrverein)

1841년부터 1843년까지 모든 주 의회가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로 다양한 신문이 창간되고 신문의 대중 소비가 극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에너지가 방출되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독일의 19세기 대중 집회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었다(Wüttmutz, 1990). 이런 시점에 브레멘 지역 학교 교사들은 그들의 정당한 노동 권리를 요구하며 정치적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1848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아이제나흐에서 열린 ‘독일 평교사 연맹’(Allgemeinen Deutschen Lehrvereins) 창립 회의에서는 교사들은 평등한 시민적 지위를 요구하며 충분한 급여와 연금 자격을 공식

적으로 요구하였다. 당시까지 학교 교사들은 사회적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군대 장교나 사병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신생 노동자 계급이었기 때문이다(Schepp, 1993, 167). 교사들은 자체적인 교원 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 및 문화적 관심을 키워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주변인'이었다. 이런 불평등 가운데서도 학교 교사들은 지역 모임에서 교육을 포함한 과학, 예술, 철학 등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때때로 대규모 '교사 대회'를 조직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다.

'브레멘 교사 연맹'은 신흥 상업 도시의 발전 속에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노동 권리를 주장하며 성장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업 도시 브레멘의 노동자와 지식인들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변호하고자 자신들의 분야와 직종에 따른 '연맹'과 '협회'들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특히 브레멘 중심 거리 '랑엔 거리'(Langenstraße)에 위치한 '야코비할레'(Jacobihalle)에서 다양한 주제로 외부 강연자를 초대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학문을 소개하는 공개 강연과 토론 모임인 '콘퍼런스'를 주최했다. 교사들은 '자연과학 협회' 콘퍼런스에서 다윈(C. Dawin)과 헤켈(E. Haeckel)의 진화론과 일원론적인 세계관을 배울 수 있었고, '문학 협회'에서는 입센(H. Ipsen), 졸라(E. Zolar), 톨스토이(L. Tolstoi)와 같은 문학가들의 현대 사실주의 사상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사상들은 교육 담론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문학 협회에서 다루지는 주요 담론들은 공통으로 교육의 개혁 필요성으로 주장하는데, 그 결과 1893년에 문학 협회 청소년 저술 위원회 산하 '교육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런 도시 분위기 가운데 1884년 29명의 교사로 시작된 '브레멘 교사 연맹'은 교육, 문학, 경제, 자연과학에 관한 토론을 주도하였고, 1900년 초반까지 약 700명의 회원이 가입된 거대 연맹으로 성장한다(Burger, 2016).

이러한 교사 연맹은 1980년대 정당정치 참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1898년 제국 선거 투표에서 67.7%로 독일 총투표수의 삼분의 일 이상을 차지한 독일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은 1912년 총선 이전 마지막 선거에서는 84.5% 투표수를 득표할 정도로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격하게 커졌다(Clark, 2020, 754-755). '콘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브레멘 교사들은 대부분 1863년 창당한 독일 사회민주당의 일원으로서 현대적 교육학에 적합한 학교 수업 개선을 정치적 과제로 요구한다. 교사들이 당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사회민주당은 그들의 주요 논제를 '종교'와 '교육'으로 설정하고, 1891년 에르푸르트 전당대회에서 "종교는 사적인 영역이다!"(Religion sei Privatsache)라는 강령을 선포한다. 여기에 따른 세부 사항으로 "종교 목적을 위한 공적 자금 투입을 전면 폐지할 것", "교회를 국가의 공공 업무와는 완전히 독립된 사적 단체로 간주할 것"을 주장하며 교회와 완전히 분리된 "학교의 세속화"(Weltlichkeit der Schule)를 요구한다(Mommsen, 1960, 349-353). 사회민주당에 '교육'은 프롤레타리아의 일상 평등의

문제와 관련이 깊은 현안으로 1903년 드레스덴 전당대회, 1904년 브레멘 전당대회, 1906년 만하임 전당대회까지 주요 주제로 상정되었다.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주로 유물론적 역사 이해, 다윈주의 진화론, 경제적인 개혁 사상, 사회주의적 평등 구현을 위한 교육 일원화였는데, 이런 주제들은 이미 브레멘 교사연맹이 1905년부터 1907년까지 다루었던 내용들과 동일하다(Bloth, 1959, 48).

4. 새로운 ‘시민 학교’와 중립적 ‘성서 역사 수업’

브레멘 교사들은 새로운 형태의 시민학교를 지향하였고, 그 안에서 기존의 신앙 고백적 성서 수업을 개선하기를 희망하기 시작했다. 이런 진보 교육 운동을 체계적으로 일으키는데 선구적 역할을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브레멘의 가장 위대한 시장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 스미트(Johann Smidt, 1773-1857)였다. 그는 당시 브레멘 지역 시민학교를 설립하고 학교 교육의 초석을 다졌으며, 1800년 27살에 시의원, 4년 후에는 장학사, 1811년에는 위원장이 되고, 1821년부터 48년이나 브레멘 시장을 역임한다. 주목할 점은 그가 학교 위원회와 브레멘 학교 설립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기본적으로 종교 수업에 대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스미트의 주도로 1844년 6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들의 의무 교육이 입법되었고, 1849년 브레멘 학교법의 초석을 작업하는 대의원 회의가 구성되며, 루터교회와 개혁교회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시민학교’가 계획되었다(Bloth, 1959, 26).

스미트의 ‘시민학교’ 설립구상은 위에서 언급한 ‘문학 협회’에서 활동하던 요한 카스퍼 헤펠리(J. C. Häfeli) 목사와 요한 루드비히 에발트(J. L. Ewald) 목사가 구체화하였다(Spieß, 1996). 이들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종교수업은 새롭게 이해되는 종교개념 이해 - 대상 종교가 아닌 도덕 감정으로서의 종교- 와 함께 새로운 교육학에 맞추어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종교로서 ‘성서 역사’(Biblische Geschichte)를 가르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에발트 목사는 어린이에게 방대한 양의 기도문, 성경 구절, 교리문답을 암기하게 하는 기존 종교 수업에 대해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의 주입”이라고 비난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객관적 이야기 형태로 신성한 역사와의 생생한 만남”을 주선하고 “쉽게 이해되며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서 역사’가 종교 수업의 주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Kirn, 1998, 120). 에발트를 비롯한 브레멘 교육 사상가들은 어린이들이 ‘성서 역사’를 통해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의 인과 관계를 스스로 이해하고 조절하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성서 역사’ 수업은 구원을 “미래를 향한 인류 역사의 전반적인 드라마”로서 이해하며, 신학적이고 예전적인 형태보다는 학생에게 흥미

롭고 친숙한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Lott & Schröder-Klein, 2006).

브레멘에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배재하는 '성서 역사' 교재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널리 퍼지고 있었다. 특히 디스터벡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브레멘 교육 책임자 뤼벤(A. Lüben)은 브레멘 작가들과 함께 1879년 브레멘 '성서 역사 이야기' 책을 출판하였다. 전통적인 신앙 고백 혹은 교리 문답을 위한 내용들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어린이들의 도덕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성서 역사로 내용을 축약하였다(Reents & Melchior, 2011, 250). 이렇게 브레멘에서 확산되던 가치 중립적 '성서 역사' 수업에 대한 요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상으로 과거의 전통을 폐기하려는 브레멘 교사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받았지만, 당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던 교회로부터는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Spieß, 1996). 이렇게 짝을 띄우기 시작한 가치중립적 '성서 역사'는 오늘날 진행되는 브레멘 '성서 역사 수업'(BGU)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III. 브레멘 학교 논쟁과 문서들

위에서 살펴본 시대적 상황과 변화 속에서 다양한 담론이 응축된 브레멘 '학교 운동'은 지극히 단편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사건을 통해 '논쟁'으로 변졌다. 그것은 1892년 브레멘 교육위원회에서 임명된 학교 감독관 뢰페(J. A. Köppe)의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교육 행정이었다. 뢰페는 1893년 1월 17일 부임하여 1907년까지 브레멘에서 감독관으로 재직한다(Bloth, 1959, 27). 그는 교실에 삐뚤게 걸린 시간표나 조금이라도 빠진 서류들을 지적하며 자신이 마치 경찰인 양 교사들의 사소한 오점까지도 찾으려 했다. 그리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아이들 앞에서 역겨운 방법으로 교사를 조롱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부임 초기부터 그의 보수적이고 고집적인 종교적 강요와 감독 방문은 교사들을 불편하게 했다. 뢰페는 교사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혹은 "그리스도는 누구였습니까?"와 같은 질문으로 교사들의 신앙관을 검사하려 했고, "예수는 인간이다"와 같은 답변을 하는 교사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벌하였다. 교사들은 이런 독단적인 감독관과 그가 속한 교육 위원회 폐지를 원했지만,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교사 콘퍼런스'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논쟁의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Spieß, 1994).

이미 그 당시 '성서 역사'를 사용하는 종교 수업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운동'(Bewegung)의 차원에서 커져가고 있었다. 1895년 2월, '브레멘 교사연합'은 성서 역사 커리큘럼 논의를 위한 콘퍼런스에서 "브레멘의 학교는 여전히 설교를 요구하는 종교의 영역이다!"라며 불

만을 토로하면서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비록 이 모임에서 전통적인 종교수업의 교육과정을 바꾸는 구체적인 결의안을 내지는 못했지만 교사들은 성서수업의 교육 과학적 적합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다(Bloth, 1959, 43).

1900년 10월 모임에서는 요한 힌리치 뮐러(J. H. Müller)가 저학년을 위한 ‘성서 역사’ 수업에 대해 강연하면서, 구약 수업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과 생략할 부분, 그리고 대체 자료로 쓰기 적절한 성서 외부의 문학 소재를 소개했다. 이것은 사실 이후 종교수업 개정안에 본격적으로 요구할 내용 선정과 배열을 위한 일종의 사전 작업이었다 볼 수 있다. 뮐러는 1904년 2월 6일 브레멘 ‘자유사상연맹(Freidenker Verein)’ 모임에서도 “학교에서의 종교수업”이라는 강연을 하는데 내용은 동일했다. 여기서 그는 “성경적 세계관은 학교에서조차도 영원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종교수업은 시대착오적이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도덕적 가르침, 계획적인 도덕 수업이기에 종교사 관점에서 우리 삶과 비교할 수 있는 종교 이야기들이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Mülle, 1901; Bloth, 1961, 44 재인용).

1905년 2월 18일, 브레멘 초등학교 교사들은 브레멘 ‘학교 개혁 연맹’(Vereinigung für Schulreform)을 결성한다. 이 모임의 본 목적은 전통적인 신앙 고백적 종교 수업을 ‘성서 역사’를 통한 세계관 수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전 준비 모임(설문조사)이었다. 이들은 전통적 종교수업의 병폐를 사회 공론장으로 끄집어내고자 했고, 이를 대체할 적절한 교육 내용으로서 ‘성서 역사’ 내용 선정에 관해 논의하고자 했다. 하지만 바로 이 모임에서 본래 모임 목적이었던 사전 준비작업은 그동안 성토되던 학교 감독관 궤폐의 ‘감독관직 사임 요구’과 더불어 ‘교육 내용의 공식적 개혁’으로까지 논쟁의 범위가 커져 버린 것이다. 결국, 학교 감독관 궤폐의 권위적인 학교 감독은 그동안 물밑에서 일어나던 학교 운동을 공식적인 논쟁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 1905년 4월『회보』(Rundschrift): “종교 수업을 대체할 교육 자료”

1905년 4월, 브레멘 교사들은 새로운 ‘성서 역사 수업’의 소재를 찾는 공고문을 독일 민족 교육 잡지『민족교육가』(Volkserzieher)의 계간지 『도서 친구』(Bücherfreund)의 『회보』(Rundschrift)로서 게재한다(Baader, 2005, 179). 공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을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투쟁 사이의 혼란은 이전보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오직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세계관을 지지하는 우리는 학교 교과 과정에서 종교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 교회의 편에서 있고, 교회의 사상들은 어떤 면에서는 구식이고 유치하기까지 하지만 여전히 학교 교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배우느라 교사와 학생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

직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종교 교육을 중립의 영역으로 이끄는 것일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의 학교 교육을 지배하는 성서수업은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세계 문학의 풍부한 [이야기]들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종교 자체가 인간사상의 가장 깊은 생명, 가장 순수한 느낌이기때, 그것은 오직 생생한 삶의 현장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묘 막심한 인간의 삶, 현실의 경계선에서 마주하는 마지막 숨결의 소리 같은 [종교]가 그저 학교의 수업재료로 다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업에서 종교는] 질문과 대답이라는 형식으로 다뤄지고, 학생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계적인 응변으로 낭독해 버립니다. [종교]는 글의 단락 안에서 설명과 개념의 체계 속에 갇혀버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종교는 이런 식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에게 경건한 감정에서 발견되고 모든 민족에게 심금을 울리는 서적들의 내용을 가르칩시다! [...] 분석하게 하지 말고, 그것과 대화하게 합시다! [...] 종교라는 용어를 영혼이 메말라 있는 [학교] 시간표에 집어넣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우리는 그저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생각 폭을 넓혀 주고자 합니다. [...] 일상에 대한 연관성과 진실성 면에서 세계 문학 작가들은 오히려 성경보다 훨씬 뛰어난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글, 어떤 이야기, 어떤 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런 세계관 수업과 관련된 주제들을 저희에게 제안하시고, 귀하의 이름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브레멘 학교개혁 연맹, 1905년 4월 9일” (Bloth, 1961, 119-120).

브레멘 '학교개혁연맹'은 현세적인 세계관 교육을 주장하며 종교란 개인의 감정과 접촉하고 내면을 성장시키는 형이상학적인 영역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교육은 사회의 도덕적 실천에 이바지하는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변호한다. 이렇게 『브레멘 회보』는 당시까지 회자되던 교육 불만들을 체계적인 논리로 정리하고 최초로 공론화하였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브레멘 회보는 단순한 공고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교사들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학교 종교 수업에 관한 선언서와 같았다. '회보'는 이미 80명의 교육 전문가에게 사전 자문과 검토를 거쳤으며, 자문이 그룹에는 『어린이의 세기』를 저술하여 시대적 반향을 일으킨 엘렌 케이(E. Key), 독일 민족주의 교육주의자 헤르만 리츠(H. Lietz), 일원주의적 교육가 에른스트 헤켈(E. Haekel) 그리고 '독일 윤리 문화 협회'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브레멘 회보서가 얼마나 내용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준비되었는지 알 수 있다(Baader, 2005).

2. 1905년 5월 「브레멘 문서」(Denkschrift): “종교수업인가 아닌가?”

당시 브레멘의 교사 전체 인원은 581명이었다(Wulff, 1950, 416). 1905년 5월 1일, 약 425명의 교사는 '야코비할레'에서 모여 '종교 수업의 폐지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Burger, 2016). 5월 22일 그들은 그동안 괴롭혔던 학교 감독관 커피의 적폐를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고발한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사회민주당원인 교사 빌헬름 홀츠마이어(W. Holzmeier)는 이 고발의 연장선으로서 '종교 교육인가 아닌가?'(Religionsunterricht

oder nicht?)라는 제목의 『브레멘 문서』(Bremer Denkschrift)을 작성하여 ‘종교교육의 폐지’(Abschaffung des Religionsunterrichts)를 요구한다. 그리고 9월 4일 세 번째 회의에서 이 문서는 273대 43의 찬반투표 결과로 이들의 입장을 공식 대변하는 문서로 채택되었다(Baader, 2005, 179; Bloth, 1961, 53). 『브레멘 문서』를 발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Nipkow & Schweitzer, 1994, 171-179; Bloth, 1961, 123-136; Kliss, 2005, 254-256). 문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학교는 국가의 사업이다: 종교는 사적인 것이다! (Schule ist Veranstaltung des Staates; Religion sei Privatsache) 이 두 명제는 기본적으로 현대 국가에서 자명한 원칙이다. 국가는 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모든 그 구성원(교사)은 당국과 국가가 인정하는 학교 기관에서 근무한다. 국가는 구성원에게 특정 신앙을 강요하지 않을 뿐더러, 교파적 신앙으로부터 독립적인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개신교인, 가톨릭교인, 유대인 그리고 비종교인들까지도 독일에서는 같은 국가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은 신앙과 양심에 관한 원칙적 표현이다”(Nipkow & Schweitzer, 1994, 171).

브레멘 문서는 “학교는 국가적 사업”이라는 1794년 프로이센 헌법의 선언과 “종교는 사적인 것(Religion sei Privatsache)”이라는 1891년 사회민주당 강령을 교육 권리의 두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원칙들에 의해 종교수업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브레멘 문서는 기존의 종교 수업이 시대 조류를 따라가지 못하여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현실을 고발하면서 ‘도덕’과 ‘윤리’를 지향하는 수업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과학의 발전과 그 지식의 확장에 따라 종교사회의 신앙의 기본원칙은 시민의 큰 영역에서 지속해 거부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배적인 종교구조의 전승들은 형이상학적인 이미지와 연결되어 전달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사고와 이성’(Wissen und Denken)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가 추구하는 교육의 이상향은 더 이상 신앙 고백적인 종교 내용이 아니고, ‘자연적인 삶의 조건과 문화적인 발전’을 통해서만(durch die natürlichen Lebensbedingungen und die kulturelle Entwicklungen) 지칭 될 수 있는 사회 지향적인 도덕과 윤리다”(Nipkow & Schweitzer, 1994, 172).

여기서 『브레멘문서』는 학교 수업이 추구해야 할 이상향은 계몽(Aufklärung)의 강조어인 ‘사고와 이성’ 그리고 사회 지향적 ‘도덕과 윤리’임을 반복하면서 ‘성경 수업’은 - 성서가 아닌 경전의 의미를 강조하는 성경 - 계몽이 추구하는 교육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성경이나 기독교의 역사는 이러한 기준에 속하는 윤리 수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성서의 수업

형태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자연 세계의 내재적인 법칙(Naturgesetzen)에 근거해야 하며, 정확한 인과관계(Kausaität)에 근거해야 한다. 하지만 성서 수업은 이러한 법칙에 어긋나며 계획적인 도덕 가르침(planmäßig sittliche Lehre)을 방해한다”(Nipkow & Schweitzer, 1994, 172).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기독교 교사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문제임을 고발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브레멘의 많은 목사도 '시민학교'의 설립과 '성서 역사' 수업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대다수의 기독교 교사도 브레멘 학교 논쟁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종교 수업의 폐기는 이미 기독교인 내부에서도 논의되던 바이다. 브레멘 교사연맹은 이미 객관적 수업(Objectiver Religionsunterricht)을 시도하고 있으며, 기독교 교사들도 이러한 성서 수업에 양심의 자유에 의한 암묵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성서 수업 내용은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다. 성서는 오히려 어른들에게 적합한 신앙 서적인데, 이것이 학교에서 강요 수업(Zwangunterricht)으로 변질되고 있다”(Nipkow & Schweitzer, 1994, 175).

『브레멘문서』는 다음과 같은 종교 수업이 폐기될 경우를 전제하여,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개혁 사항을 제안한다(Nipkow & Schweitzer, 1994, 178-179; Bloth, 1961, 135-136; Kliss, 2005, 256).

〈표2〉 1905 브레멘 문서 결론 제안사항

1항	종교 수업의 시행은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하여 원하는 때에만 개별적인 종교 수업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항	윤리 수업은 지금까지의 종교 수업과 더 이상 연계하지 않는다.
3항	윤리 수업은 읽기 교재에서 다루지는 것처럼 일반적인 세계관과 생활 교육을 지향한다.
4항	윤리 수업은 저학년, 중급 학년 학생의 정신·도덕 단계에 적합해야 하고, 문헌적으로 출중한 세계 문학 자료가 활용되어야 한다.
5항	이러한 제안과 관련하여 학교 교과 과정은 나머지 교과 시차를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5항 a	저학년 (Klasse VIII und VII)에게는 아동의 지적 능력에 맞게 조정되고 그들의 실생활과 맞추어 선정된 동화 문학을 통해 세계관 형성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
5항 b	중등 학년 (Klasse VI und III)에게는 문학 수업과 연계된 윤리 수업이 제시된다. 나머지 조정된 과외 시간은 종교 단체에 의해 추가될 수 있다.
5항 c	중등 학년 (Klasse VI und III)에게는 문학 수업과 연계된 윤리 수업이 제시 된다. 나머지 조정된 과외 시간은 종교 단체에 의해 추가될 수 있다.
5항 d	고등 학년 (Klasse II und I)에서는 법을 이해하는 조직적인 윤리 수업이 이뤄진다.
5항 e	고등 학년 (Klasse II und I)에서는 일반적인 종교 역사 수업이 시행될 수 있다.

IV. 『브레멘 문서』의 법률적 영향: 『브레멘주 헌법』(1947)부터

『독일기본법』(1948) “브레멘 조항”(Bremen Klausel, Art. 141 GG)

『브레멘 문서』의 여파는 그 이후 다양한 후속 사건들로 이어진다. ‘브레멘 학교 논쟁’과 ‘브레멘 문서’는 교육 당국에 대한 교사들의 집단적 하극상으로 비추어져 문서 작성을 주도한 교사들은 교육 위원회에 의해 문책받는다. 문서에 대표 서명한 4명의 교사는 몇 년간 해임에 대한 심문을 받았으며, 문제의 발단이었던 학교 감독관 쾰페도 결국 해임된다. ‘교사연맹’은 교육 당국의 조치에 항거하며 더욱 거센 교육개혁 운동을 이어가고, 1910년 4월 교육위원회에서는 단독적인 학교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교장직을 폐지하고, 교사가 포함된 이사회를 구성하여 당국과 협력하며 운영하기를 결의 한다(Bruker, 2016). 이러한 후속 조치와 더불어『브레멘 문서』는 이후 종교수업과 관련된 법 조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브레멘주 헌법』(1947): “종파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일반적인 기독교?”

브레멘 사건의 영향은 1947년『브레멘주 헌법』의 종교 교육 관련 조항에 영향을 미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멘의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hristliche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은 브레멘 지역 학교에 교회가 적극 참여하는 신앙 고백적 종교수업을 도입하고자 입법 활동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브레멘 학교 논쟁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속한 브레멘 사회민주당은 교회의 참여가 완전히 차단된 ‘비종파적 성서 역사 수업’을 종교 수업으로 가르치기를 고수했다. 이런 대립 가운데 1947년 10월 21일, 『브레멘주 헌법』 제 32조는 결국, “브레멘의 일반 학교는 비종파적 교육을 받는 지역 학교”라고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Lott & Schröder-Klein, 2016).

“국공립학교는 종파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일반적인 기독교에 기초한 성서 역사 수업(Bekenntnismäßig nicht gebundenen Unterricht in Biblischer Geschichte auf allgemein christlicher Grundlage)을 받는 지역 학교다. 성서 역사 수업은 이 사항에 동의한 교사들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 있다. 법적 관련자에 의해 수업 진행 자격은 결정된다. 교회, 종교 및 이념의 공동체는 학교 시간 외에 법적 관련자의 허가 아래 어린이에게 신앙고백이나 이념을 가르칠 수 있다”(Art. 32. BLV).

1905년 ‘브레멘 학교 논쟁’에서 브레멘 교사들이 줄기차게 제기하였던 비종파적, 중립적 종교 수업의 요구가 결국 1947년 브레멘 주 헌법에서 “종파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일반적인 기독교에 기초한 성서 역사 수업”이라는 법문으로 해석되고 수용된 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브레멘 학교의 종교 수업에는 더 이상 전통 교회의 신앙 고백적 수업 관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2. 『독일기본법』(1948) “브레멘 조항”(Bremen Klausel, Art. 141 GG): “다른 법률이 존재하는 주에서는…”

그로부터 1년 후, 1948년부터 준비하여 1949년 발표된 『독일기본법』 제4조에서는 ‘종교의 자유(Religionsfreiheit, Art. 4 GG)에 대한 조항이, 제7조에서는 종교 수업에 관한 조항이 제정된다. 특히 ‘독일기본법’ 제7조 3항 1문에서 “종교 수업은 비종파적 학교를 제외한(mit Ausnahme der bekenntnisfreien Schule) 국공립학교의 정규 교과목”이라고 선언하며 종교를 필수 교과로 인정한다(Art.7 Abs.3 Satz.1 GG; Bongardt, 2012).

이것은 1947년 『브레멘주 헌법』 제32조와는 다소 상충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일반적으로 기독교로 이해되는 종교가 독일 연방 헌법에 따라 국가 교육의 정규 과목으로 선언되었지만, 브레멘주 헌법에서 이해하는 종교(기독교) 개념은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기본법』은 이러한 법적 상충을 막기 위한 부속 조항으로서 한 줄짜리 제141조항을 삽입한다.

“제7조 3항 1문은 194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다른 법률 조항이 존재하는 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rtikel 7 Abs. 3 Satz 1 findet keine Anwendung in einem Lande, in dem am 1. Januar 1949 eine andere landesrechtliche Regelung bestand)(Art. 141 GG).

이 조항은 단 한 줄이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항이었으며, 여기에는 ‘브레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지금까지도 “브레멘 조항”(Bremen Klausel)이라고 불린다(Lott, Schröder-Klein, 2016). 주목할 것은 이 한 줄짜리 조항이 1948년 ‘독일기본법’ 평의원 재정 심의에 브레멘 대표로 홀로 참여했던 사회민주당 의원, 아돌프 엘러스(A. Ehlers)의 노력으로 삽입된 조항이라는 점이다. 엘러스 의원에 의해 삽입된 ‘독일기본법’ 제141조 덕분에 브레멘의 공립학교는 제7조 3항에서 말하는 국공립학교 정규과목으로서 종교 수업 의무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었고, 1905년 『브레멘 문서』가 요구했던 교회와 학교의 분리, 그리고 탈교리적 ‘성서 역사’ 수업을 성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

3. “브레멘 조항”(Art. 141 GG)의 강력한 법적 효과

“브레멘 조항”이라고 불리는 『독일기본법』 제141조 한 줄은 누가 보아도 브레멘의 학교 교육을 염두에 둔 것임은 자명했다. 그리고 법조문의 효력은 매우 강력했다. 1960년 10월,

브레멘 개신교회(Bremische Evangelische Kirche)는 브레멘 학교 종교 수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브레멘 주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위에서 언급한 『독일기본법』 제7조 3항과 1959년 『브레멘 사립학교법』 제17조 1항: “허가받은 대안학교(Ersatzungsschule)에 한해서는 일정한 교사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를 근거로 브레멘 학교 교육에 종파 배경의 교사를 투입하고자 헌법 소원을 청구 하였다. 하지만 브레멘 개신교회의 헌법 소원은 ‘브레멘 조항’인 『독일기본법』 제141조를 근거로 기각되었다. 1971년 1월 13일, 브레멘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한다(1971.01.13. BvR 671, 672/65, www. Rechtsprechung.org).

- 1) 기존 『브레멘주 헌법』 제32조의 ‘종파에 연관되지 않는 성서 역사 수업’이라는 조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서 말하는 종파에는 개신교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교회가 포함된다.
- 2) ‘일반적인 기독교 기초에 근거한’이란 조문에서 기독교라고 함은 개신교나 가톨릭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브레멘 헌법재판소는 원고 브레멘 개신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 헌법 재판소의 기각 판결에는 ‘성서 역사 수업’은 모든 학생을 위한 수업이므로 철저하게 개방성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이런 원칙에서 어떤 선교 목적이나 특정 신앙고백과 연관된 교육은 제공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1905년 브레멘 교사들이 주장하던 주요 주장들은 대부분 법 조항에 반영되었고, 그들이 이해하던 종교와 교육의 이해는 법조문을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반복할 수 없는 강력한 판례를 만들어 냈다.

4. “브레멘 조항”의 장기적인 후속 영향: 탈교리적 종교 수업

브레멘 학교 논쟁에서 주장되던 객관적 종교교육의 목소리는 단순한 과거의 사례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날 『독일기본법』 제7조 3항을 받아들여 신앙 고백적인 종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독일 지역들과는 달리, 탈교리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종교 수업을 주장하는 몇몇 예외적인 교육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함부르크 지역의 경우, ‘모두를 위한 종교’(Religion für Alle)라는 이름으로 비기독교인까지도 포함하는 ‘간종교적 종교교육’ 지향하고, 브란덴부르크 지역은 ‘생활태도-윤리-종교’(LER)라는 이름으로 생활과 윤리를 통합하는 도덕 지향적 종교 교과과정을 택한다. 그리고 브레멘의 경우, 1905년의 종교 자유 운동은 지금까지 이어져 탈교리적, 비종파적 ‘성서 역사 수업’(BGU) 교육과정이 채택되었다(강영택 외, 2013, 119). 이러한 탈교리적 종교 교과과정을 택하는 함부르크, 브란덴부르크의 종교 교과과정의 발전에는 『브레멘주 헌법』과 『독일기본법』의 ‘브레멘 조항’

의 판례가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Lott & Schröder-Klein, 2016, 71).

V. 브레멘 학교 논쟁이 한국 기독교 학교교육에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브레멘 사건의 발단부터 진행 과정은 독일 종교교육의 역사 속에서 19세기 과학·사회·문화의 변화가 다차원적인 사건들을 통해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오늘날 브레멘 지역 종교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다. 19세기 초반부터 교리 중심의 종교 수업을 둘러싸고 서서히 응축되고 증폭되던 긴장은 1905년 브레멘 학교 논쟁을 통해 정치·사법적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이러한 법적 영향은 현재까지 브레멘 지역에서 진행되는 탈교리적 '성서-역사 수업'(Biblische Geschichte Unterricht)이라는 이 지역만의 특수한 교육과정을 가능케 했다.

〈표 3〉 브레멘 사건의 특수한 영향사건

년도	1850	1891	1905	1947	1948	1971	현재
사건 문서	프로이센 헌법	사회민주당 에르푸르트 전당대회	브레멘 문서	브레멘주 헌법	독일기본법 브레멘 조항	브레멘 개신교 헌법소헌 패소	성서 역사 교육 과정 (BGU)
주장 결과	국가의 종교 교육 개입	종교의 공적 기능 거부	종교 수업 폐지 주장	공립학교 종파적 종교수업 금지	종교수업 예외 지역 허용	기독교에 대한 종교학적 해석	탈교리적 성서수업

오늘날 대부분의 독일 주 정부는 『독일 기본법』 제7조 3항을 받아들여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의 신앙 고백 관점에서 종교 수업을 정규 교과로 인정한다. 게다가 교육과 종교가 분리된 현대 세속 사회라 할지라도 일반 교육 과정의 교육 정체성에 기독교 가치를 내포하기 까지 한다. 예를 들어,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 2016년 개정 교육과정'(Bildungsplan, 2016)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헌법』 제12조 1항에 기초하여 교육목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학생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기독교적 이웃 사랑과 만인의 형제애 안에서, 백성과 조국에 대한 사랑, 도덕적, 정치적 책임, 직업과 사회의 유지, 자유 민주 태도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Bildungsplan; Baden-Württemberg, 2016).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체 교육 과정 첫 구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 '기독교적 이웃 사랑과 형제애'가 '도덕'이나 '정치'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브레멘 지역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 주는

일반 교육에서도 기독교 가치와 정신을 인정하기에 종교 수업에서도 신앙 고백적 수업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교육에 있어서 기독교 정신을 교육의 기본 목적과 원칙으로 삼는 다른 주들과 달리, 오늘날 브레멘 지역과 이웃 지역(브란덴부르크, 함부르크)의 종교 교육과정은 예외적으로 가치 중립적 윤리 교육, 혹은 탈교리적 종교 교육과정을 지향한다. 우리는 이러한 브레멘의 종교 교육 상황은 결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교육 정책이 아니라 과거 특정 시대의 특수한 교육 사상이 장기적으로 정치·조직화하며 역사화 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교 수업에 대한 긴장이 응축되고 상승하여 구체적인 교육 과정으로 자리잡기까지 작용한 요인들에 관한 본 연구의 일차적 역사적 서술과 탐구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교육의 현장, 특히 한국의 사립 기독교학교에서의 신앙 교육의 정책과 방향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1. 학교의 설립 이념과 기독교 정체성의 전복

독일과 한국의 학교 종교교육 역사와 정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한국과 달리, 독일의 공립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국가 공공 교육의 정체성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공립학교 제도는 루터와 멜랑히톤이 주도한 독일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시작되었다. 중세부터 이어져 오던 가톨릭의 수도원 학교를 폐지하고, 모든 이들이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18세기 경건주의도 학교에서의 교리문답 교육을 강조할 정도로 독일 공립학교의 역사는 기독교 전통과 불가분의 관계다. 제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그 역사적 전통은 현대 학교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오늘날 독일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공동체 학교, 세계관 학교 또는 종교학교 형태의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종교 수업의 자유와 권리는 법적으로 공평히 보장받는다. 종교 수업은 독일기본법 제7조가 선언하는바, 일반적인 공공 학교의 정규 교과로서 정부의 통제보다는 보장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기독교학교가 독일의 공립학교 역사와 선불리 비교하기 힘든 점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점과 대부분의 기독교학교가 기독교 정체성을 건학 이념으로 삼는 특정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기독교 전통을 교육 이념으로 인정하는 독일의 경우와 달리, 한국의 기독교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1조에 드러나듯 설립 주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수업 운영과 방향성에 있어서는 정부 재정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종교 중립성의 통제를 받는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일과 한국의 학교 종교 교육의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1905년 브레멘 사건 전후 진행되는 일련의 사건이 내포하는 긴장의 요인들은 독일과 한국 학교 교육의 다른 배경, 그리고 19세기와 21세기의 시대적 틈을 넘어서는 공통의 시사점이 있다. 그것은 학교의 건학 이념, 즉 기독교 정체성의 도전이다. 독일 공립학교는 한국의 사립학교처럼 특정 건학 이념이라는 것을 따로 말하지 않더라도, 독일 사회의 종교 지형도나 종교개혁 이후 학교 설립의 역사를 비추어보면 초대 설립 이념의 기저에는 기독교적 민주 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이 깔려있다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공립 초등학교라 할지라도 입학 예비와 종강 예비를 드리기도 하고, 입교를 위한 종교 수업도 학교에서 정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역 교회와 협력할 다양한 기회가 제공된다.

하지만 브레멘 사건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브레멘 지역 교사들이 요구했던 새로운 시대의 학교 이념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고백 정체성보다는 시민학교 정체성을 더 강조하면서 독일 공립학교의 전통적 건학 이념의 전복을 시도했다. 1971년 브레멘 개신교회가 패소한 헌법 판결에서 보듯이, 교회 전통에서 설립된 학교라 할지라도 학교 종교 수업에는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브레멘 사건의 결과물로 나타났다. 아무리 독일의 상황과 전혀 다른 배경의 한국 기독교학교라 할지라도, 건학 이념으로서 기독교 정체성과 교육 행위가 종교 중립성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브레멘 사건의 영향사적 결과는 한국 기독교학교의 설립이념과 정체성 보전을 위한 비교 연구로서 참고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2. 종교학 관점에서 기독교 이해와 영향

브레멘 학교 논쟁의 핵심 쟁점은 종교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이해라 할 수 있다. 독일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종교는 '대상 종교'(Objektive Religion)로서 기독교였다면, 19세기부터 새롭게 등장하여 논쟁을 야기하는 종교 개념은 '문화종교' 혹은 '일상 종교'(Gelebte Religion)다. 여기서 기독교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종교라기보다는 시대의 문화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문화적 종교 혹은 개인 삶의 의미와 도덕적 행위를 고취하는 도덕적 종교로 이해된다.

브레멘 문서 첫 문장으로 선언하는 “종교는 사적인 것”이라는 브레멘 학교 논쟁의 핵심 주장은 전통적인 기독교 이해를 종교학적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축소하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 종교 개념의 새로운 이해는 교육과 종교를 분리하는 절대적 논리로 받아들여졌다. 브레멘 문서가 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미 여러 콘퍼런스와 정치적 연맹을 통해서 사상적 연구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기에 그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브레멘

학교 논쟁에서 대두된 새로운 종교 이해는 오늘날 브레멘 교육과정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현재 브레멘 지역 학교에서 종교 수업은 존재하지만, 이 종교 수업은 지극히 종교학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브레멘 지역의 대표적 종교 교육과정인 '성서-역사 수업'(BGU)도 성서에서 신앙의 내용을 제외한 역사적 관점에서 전달하며, 이 성서-역사를 교육 재료로 삼아 세계 종교에 대하여 그 어떤 신앙적 전제 없이 가르치는 지적이고 객관적인 교양 교육을 지향한다. 그렇기에 현재 브레멘 사범대학에서 양성되는 종교 교사의 역할은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신앙 교사가 아닌, 종교학 교사다. 더욱이 2005년부터는 중립적인 성서-역사 수업조차도 종교학 관점에서 가치중립이지 않다는 이유로 '철학'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이슬람 수업'을 추가하는 과정이 진행된다(Lott & Schröder-Klein, 2016, 71).

한국의 경우, 2011년 재개정 교육과정부터 처음 명명되었던 '종교학' 교육과정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내용의 체계화를 이루고, '종교학'이라는 명칭은 최초 '종교'에서 '생활과 종교'를 거쳐 정규 종교 교육과정의 일반적 용어로 자리매김하였다(박상진, 2013). 그리고 지금까지 종교학으로서의 종교 교과가 지향하는 바는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 이바지하는 교양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교양 수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종교학' 교육과정의 출현에는 2010년 '강의석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손원영, 2020). 1905년 독일 브레멘 학교 논쟁과 2010년 한국의 강의석 사건, 그리고 이들에 대한 각 국가의 법적 판례는 결과적으로 모두 기존의 전통적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종교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로 종교학적 종교 수업이 출현하였다.

종교학적 교과과정과 종교 교육 정책은 지역 학생의 실제적 신앙 교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독일의 다른 지역에서 전통적 입교 교육(Konfirmation)은 일반적으로 김나지움 8학년과 9학년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정규 교과 수업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브레멘의 경우, 입교 교육은 오로지 '방과 후 선택 수업'(AG)의 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 결과 입교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브레멘 전체 학생의 30%에 불과하며 이는 독일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게다가 브레멘 지역에서 완전한 기독교 사립학교의 형태로 종교 수업과 입교 교육을 진행하는 네 학교는 재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완전한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선발권과 종교로 인한 차별 여부에 대해 교육 당국으로부터 철저하게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급변하고 다양화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종교의 확장적 개념은 필요하다. 하지만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며, 그리고 객관성을 지향하는 종교 이해는 기독교 신앙교육을 정체성으로 삼는 기독교학교의 교육 방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없다. 기독교교육이 신앙의 고백을 제외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교육으로만 대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종교(기독교)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이며 윤리·도덕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3. 기독교교육 발전의 신학적 성찰과 자극

독일 종교교육 발전의 흐름은 “교리문답에서 학문적 종교교육학으로의 전환”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시대의 사회적 특징과 도전에 대한 구조적인 응전이며, 문화 및 종교 언어를 재정립하는 근대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F. Schweitzer & H. Simojoki, 2005, 26). 우리가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주목할 점은 브레멘 사건이 일어난 1905년 전후로 제기된 학교 종교 수업 철폐에 대한 응전은 20세기 독일 종교(기독교)교육의 역사에서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는 점이다. 종교 수업의 근대화 과정에서 ‘종교의 교수 가능성’(Lehrbarkeit der Religion)이라는 신학적 질문이 대두된 한편, 성서 수업의 내용 선정과 교육 과정이 일반 교육이론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교육학적 질문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대한 응전으로서, 20세기 초반 프리드리히 니버갈(F. Niebergal)과 리차드 카비쉬(R. Kabisch)로 대변되는 개혁종교교육(Reform Religionspädagogik)은 전통적 교리문답 형태의 종교 수업을 심리학과 문화·문학을 접목하며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 교육 권리를 주장하였다. 1920년대부터 게하르트 보네(G. Bohne)와 마틴 랑(M. Rang)을 포함한 종교(기독교)교육학자들은 학교 종교 수업에서 신학과 교육의 연결을 강조하면서 학교에서의 복음 선포(Evangelische Unterweisung)를 강조한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마틴 스탈만(M. Stallmann)과 한스 스톡(H. Stock)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성서 언어와 학생의 경험을 연결하는 해석학적 종교교육이 발전한다(윤응진, 1990). 이와 같은 독일 종교교육의 다양한 이론의 출현은 종교 수업의 철폐나 비종파적 종교 수업을 요구하는 시대적 도전 속에서 기독교 전통의 신앙 교육의 권리 주장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브레멘 학교 논쟁이나 강의석 사건과 같은 일련의 사건은 어떻게 분석하고 응전하는가에 따라 기독교교육의 내용을 성찰하고 발전시키는 자극이 될 수 있다.

VI. 나가는 글

이 글은 아직 한국에는 자세하게 소개되지 않은 1905년 브레멘 학교 논쟁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오늘날 독일 북동부 지역에서 자리 잡은 중립적 교육과정은 브레멘 학교 논쟁, 브레멘 문서 그리고 이들의 영향으로 결국 제정된 독일 기본법의 브레멘 조항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종합적으로 볼 때, 1905년 ‘브레멘 학교논쟁’과 ‘브레멘 문서’는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종교교육 논쟁이며, 19세기 사회문화적인 갈등의 축적-축발-영향이

21세기까지 이어지는 ‘영향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는 사회문화의 격변기에 놓인 오늘날 한국 기독교교육이 직면한 현상과도 많은 부분이 닮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 안에서 기독교 정체성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제와 도전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신앙고백을 배제한 완전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종교 수업이 과연 가능한지 반문해 볼 수 있다. 19세기나 21세기나 많은 이들이 객관적 종교를 주장하거나 혹은 종교 자체를 거부하는데,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성서를 통한 종교 수업은 어떻게 기독교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교육학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브레멘 사건의 진행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미비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 본 연구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당시 루터교회와 개혁신교회의 분열은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발전한 브레멘 주장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힘들었던 또 다른 요인이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교회의 분열과 사회 신뢰도 상실이 사회의 교육적 요구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법 조항을 포함한 교육정책이 ‘단 한 줄짜리’라 할지라도 얼마나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물론 브레멘 사건의 독일 배경과 오늘날 한국의 국공립학교 종교교육의 배경은 분명 다르다. 하지만 갈등이 축적·증폭되어 사건을 일으키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브레멘 학교 논쟁의 일차적 배경 분석은 한국 기독교교육의 현장에서 간과해서 안 될 점들을 보여주는 역사적 비교 연구 자료라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종교교육을 일반교육과 기독교교육 사이에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야 하며, 기독교교육의 정체성을 교육학적으로 보장하는 길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과연 교회와 기독교학교는 기독교 정체성과 공공성을 연결하기 위하여 어떤 연구를 계속 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가 종교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문규 (2009). 19-20세기에 있어서 독일 기독교교육 수업의 개념이해. **기독교교육논총**, 21, 239-273.
- [M. K. Kang. (2009). Die Betrachtung der wichtigen Konzeption für den deutschen Religionsunterricht im 19.-20. Jahrhundert.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1, 239-273.]
- 강영택 외 (2013). **종교교육론: 학교에서의 기독교적 종교교육**. 서울: 학지사.
- [Y. T. Kang. et al. (2013). *Religious Education: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s*. Seoul: Hakji.]
- 김유환 (2008). 초중등학교 종교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 강의석사건 판결의 의미와 전망 -. **공법학연구**, 9(1), 305-322.
- [Y. H. Kim. (2008). Problems and Policy Directions of Religious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Meaning and Prospect of Mr. Kang Case-. *Public Law Journal*, 9(1), 305-322.]
- 박상진 (2019). 종교교육과 사립학교의 자율성. **장신논단**, 51(1), 231-251.
- [S. J. Park. (2019). Religious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1(3), 231-251.]
- 박상진 (2013a). 기독교교육학의 정체성에 근거한 기독교교육(학)과의 커리큘럼 진단. **기독교교육논총**, 33, 201-239.
- [S. J. Park. (2013a). An Analysis of the Curriculum of Christian Education Departments on the Basis of the Identity of Christian Education.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3, 201-239.]
- 박상진 (2013b).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에 근거한 종교학 교육과정의 문제점. **기독교교육논총**, 36, 35-64.
- [S. J. Park. (2013b). Problems of the 'Science of Religion' Curriculum as Based on the Identity of Christian Schools.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6, 35-64.]
- 손원영 (2020). 개신교 중립학교에서의 종교학 교과서와 종교평화적 성찰. **종교교육학연구**, 64(1), 21-40.
- [W. Y. Sohn. (2020). A Critical Study on "Religious Studies" Textbook of Protestant School in the Perspective of Religious Peac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4(1), 35-64.]
- 양금희 (2012) 종교개혁기의 학교, 교회, 그리고 국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44(4), 345-372.
- [K. H. Yang.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Country and Academic Institutions during the Protestant Reformation.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4(4), 345-372.]
- 윤용진 (1990). 기독교교육과 정치, 독일 기독교(종교)교육사 개관. **한신논문집**, 7, 233-271.
- [E. J. Yoon. (1990). Christian Education and Politics. Overview of the history of christian(religious) education in Germany. *Hasin Journal*, 7, 233-271.]
- 정병훈·박승재 (1986). 독일의 교육제도와 과학교과목. **한국교육과학회지**, 6(1), 59-72.
- [B. H. Jeong and S. J. Park (1986). German education system and science subject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6(1), 59-72.]
- Alexander von Paderberg (1850). *Die Volksschule im Verhältnisse zu Kirche und Staat gegenüber der Verfassung-Urkunde des Preußischen Staates vom 31. Januar 1850*.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 Baader, M. S. (2005). Kritik des Religionsunterrichtes im Namen der Rettung des Religiösen Reformpädagogik und Religion um 1900. *Jahrbuch für Pädagogik*, 2005, Frankfurt am Main: Peterlang, 177-194.
- Berg, C. (1973). *Die Okkupation der Schule*, Heidelberg: Quelle u. Meyer.
- Bloch, E. (1985). *Erbschaft dieser Zeit*. Erweiterte Ausgabe. Frankfurt/M: Suhrkamp.
- Bloth, P. C. (1961) *Der Bremer Schulstreit als Frage an die Theologie: Eine Studie zur Problematik des Religionsunterrichts in der Volksschule des frühen 20. Jahrhunderts*. Doctoral dissertation (1959). Dortmund: Münster university.
- Bongardt, M. (2012). Nicht nur ein Schulstreit? Der Ethikunterricht als Indiz und Herausforderung einer sich

- wandelnden Gesellschaft. *Herder Korrespondenz* 66(8). 398-403.
- Bremischen Staatsgerichtshof, *Das Fallrecht*. Retrieved May 1, 2023, from <http://www.servat.unibe.ch/dfr/bv030112.html>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Art. 7.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Retrieved May 1, 2023, from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art_7.html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Art. 141.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Retrieved May 1, 2023, from <https://dejure.org/gesetze/GG/141.html>
- Burger, J. (2016). Reformpädagogik und Sozialismus. Der Bremische Lehrerverein vor dem Ersten Weltkrieg. 70 Jahre GEW - 190 Jahre Bremer Lehrerverein. *Bildungsmagazin*. Retrieved May 1, 2023, from <https://www.gew-hb.de/aktuelles/detailseite/70-jahre-gew-190-jahre-bremer-lehrervereine-teil-4-reformpaedagogik-und-sozialismus>
- Clark, C. (2020). **강철왕국 프로이센**. 박병화 역. 서울: 마티.(원저출판 2009)
- [Clark, C. (2020). *Iron Kingdom: The Rise and Downfall of Prussia 1600-1947*, Trans. Park. B. H. Seoul: Mati. (Original work published 2009)]
- Günther, Karl-Heinz. (1984) Profile: Friedrich Adolph Wilhelm Diesterweg (1790-1866). *Prospects*, 14, 423-429.
- Jeismann, K. E. (1974) *Das preußische Gymnasium in Staat und Gesellschaft: die Entstehung des Gymnasiums als Schule des Staates und der Gebildeten, 1787-1817*. Stuttgart: Klett-Cotta.
- Kirn, H. M. (1998). *Deutsche Spätaufklärung und Pietismus. Ihr Verhältnis im Rahmen kirchlich-bürgerlicher Reform bei Johann Ludwig Ewald (1748-1822)*.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 Kliss, O. (2005). *Schulentwicklung und Religion: Untersuchungen zum Kaiserreich zwischen 1870 und 1918*. Stuttgart: Kollhammer.
- Krueger, B. (1970). *Stiehl und seine Regulative: Ein Beitrag Zur Preussischen Schulgeschichte*. Weinheim: Beltz.
- Krummacher, F. A. (1823). *Die christliche Volksschule im Bunde mit der Kirche*. Essen: Bädeker.
- Kuhlemann, F. M. (1992). *Modernisierung und Disziplinierung. Sozialgeschichte des preußischen Volksschulwesens 1794-1872*,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 Kuhlemann, F. M. (1993). Tradition und Innovation. Zum Wandel des niederen Bildungs-sektors in Preußen 1790-1918. *Jahrbuch für Historische Bildungsforschung*. Bd. 1. Weinheim: Juventa.
- Lott, J. and Schröder-Klein, A. (2006). Religion unterrichten in Bremen, Theo-Web. *Zeitschrift für Religionspädagogik*, 7. 68-79. Retrieved May 1, 2023, from <https://www.theo-web.de/zeitschrift/ausgabe-2007-01/7.pdf>
- Ministerium für Kultus, Jugend und Sport Baden-Württemberg. (2006). *Bildungsplan der Grundschule, Bildungsplan 2016. Evangelische Religionslehre*. Retrieved May 1, 2023, from http://www.bildungsplaene-bw.de/site/bildungs-plan/get/documents/lbw/export-pdf/depot-pdf/ALLG/BP2016BW_ALLG_GS_REV.pdf.
- Mommsen, W. (1960). *Deutsche Parteiprogramme. Deutsches Handbuch der Politik 1*. München: Lebendiges Wissen.
- Nipkow, K. E. and Schweitzer, F. (1994). *Religionspädagogik. Texte zur evangelischen Erziehung- und Bildungsverantwortung seit der Reformation Band 2/1: 19. und 20. Jahrhundert*. Gütersloh: Gütersloher.
- Reents, C. and Melchior, C. (2011). *Die Geschichte der Kinder- und Schulbibel. Evangelisch - katholisch - jüdisch: Arbeiten zur Religionspädagogik*.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 Schleiermacher, F. D. (1799). *Über die Religion, Reden an die Gebildeten unter ihren Verdächtern*. Carl, H. Rathschow (ed.) Leipzig: Reclam.
- Spieß, M. (1994). Hohe Behörde möge verfügen, daß der Religionsunterricht abgeschafft werde. In: Schulgeschich

- liche Sammlung Bremen (ed.). *Geh zur Schul und lerne was. 150 Jahre Schulpflicht in Bremen*. Bremen: H auschild.
- Spieß, M. (1996). Der ‚Biblische Geschichtsunterricht‘ zwischen Gestern und Morgen. Was ist der bremische Religionsunterricht? Vom "Biblischen Geschichtsunterricht" zu RELIGION. Retrieved May 1, 2023, from https://web.archive.org/web/20110803133424/http://www-user.uni-bremen.de/~mspiess/bremer_ru.htm.
- Schepp, H. H. (1993). *Die Schule in Staat und Gesellschaft. Dokumente zur deutschen Schulgeschichte im 19. und 20. Jahrhundert*.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 Schwartz, F. J. (2001). Ernst Bloch and Wilhelm Pinder: Out of Sync. *Grey Room*, 3, 54-89.
- Wittmütz, V. (1990). Politisch-pädagogisches Denken in der rheinischen Lehrerbewegung um 1800, *Zeitschrift für Pädagogik*, 24, 363-376.
- Wittmütz, V. (2007). *Die preußische Elementarschule im 19. Jahrhundert*. Retrieved May 1, 2023, from <https://www.europa.clio-online.de/essay/id/fdae-1436>.
- Wulff, H. (1950). *Geschichte und Gesicht der bremischen Lehrerschaft. Gestalten und Generationen aus hundert Jahren (1848- 1948)*. Band 1. Bremen: Hans Krohn.